현대불교 석학 탄허 스님 생가 복원된다

김제시가 현대불교 대표적 석학인 탄허 스님(1913~1983)의 생가복원을 추진한다.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11월 8일 이건식 시장, 나병문 시의장, 유진우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불교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탄허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만경읍 대동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탄허스님 생가터로 알려진 대동리 300번지 일원은 현재 대밭으로 있으며, 건축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나 1955년 생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안내 역할만 하고 있다.

김제시는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김제 금산사 등 불교계와 연계해 4억여 원의 국가 예산으로 생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17년 부지 매입과 생가에 대한 고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복원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가 인근에 탄허 스님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탄허 스님은 1934년(22세)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 출가했다.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을 은사로 용맹정진했으며, 1983년(71세) 오대산 월정사에서 원적했다. 화엄학과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며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추앙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2017 중점 예산사업 '신도시 포교'

예산 총 701억원 확정… 특별회계 443억원

조계종 201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2016년 대비 약 287억이 증가한 701억원으로 확정됐다. 신도시 포교를 위한 세종 · 위례신도시 시설건립 등 특별회계가 159억여원 증액된 443억여원에 달한 것이 주 원인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2017년 예산은 신도시 포교와 34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를 실행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신도시 포교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일반예산을 5% 삭감하는 대신 특별회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17년 10월 경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중앙선관위 예산이 6950만원 증액된 1억1023만원으로 170% 증가 편성됐으며 신도시포교 시설건립 전출예산으로 인해 재무부 예산이 12억4322만원 증액된 52억177만원으로 편성됐다.

종정 추대식 및 총무원장 이취임식 등을 소화하는 총무부와 신임 원로의원이 충원되는 원로회의, 호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는 3~6% 가량 예산이 삭감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종 · 위례신도시 시설건립 관련 특별회계가 95억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 매입을 진행중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 관련 특별회계가 32억2140만원 증액된 59억215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국민연금 지원을 본격화 하는 승려복지 사업의 특별회계가 15억7870만원 증액된 47억8470만원으로 편성됐다.

은퇴출가자, 개념 정립부터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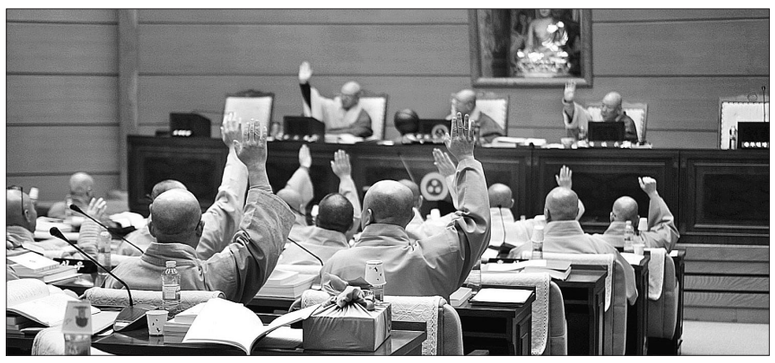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이 사회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 출가제도가 도입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좌절됐다. 정기회 출석인원 52명 중 찬성 31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신도시포교 95억여원 등 배정

35대 총무원장선거 대비 기조

현대차 GBC건설 종단 대응 질타

은퇴자 출가제도는 신도와 출가자 사이인 은퇴출가자에 대한 승단의 개념정리부터 필요한 모습이었다. 종회에서는 역할과 지위, 교육, 의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종회에서는 신도개념에 가까운 은퇴자 출가제 운영에 입장 개진이 많았다. 당초 제정안에 포함된 삭발과 의제, 교육의 경우 반발이 심했으며 차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 207차 정기회의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을 둔 표결에서 스님들이 찬반거수를 하고있다.

법안 수정에서는 권리는 축소되고 의무가 강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존 포교사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은퇴자를 출가 활용을 위한 것인데 법 도입 취지가 명확해야 한다. 스님도 아니고, 신도도 아닌 집단을 만드는 것은 포교사와 다를 바 없는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부지 환수 대상 잘못됐다"

종책질의에서는 한전부지 환수에 대한 종단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광전 스님은 "봉은사 토지(한전부지)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장인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하는데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광전 스님은 "2015년 정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7차 투자활성화 계획이 발표된다. 여기에 기재부, 문체부, 국토위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데 한전부지 조기착공, 건축인허가 등을 조속히 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서울시가 부지 개발 인허가 쥐고 있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앞당길 의사를 비추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도 있다. 광속 인허가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종회의원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동력이 떨어졌다. 체면도 떨어지고 실리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망현대차'와 같은 행위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출구전략 요청도 이어졌다.

이 밖에 법인관리법 제정 2년 간 행정조치가 없었던 데에 대해 법인 현황 파악과 행정지원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는 종책질의도 이어졌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결 스님,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덕조 스님,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수암 스님,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정 스님,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태원 스님,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위원장에 화평 스님,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법원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동명 스님, 소청심사위원으로 화봉, 덕림, 본오 스님을 선출했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도성, 현담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 보각 재연 지현 지안 태관 대전 원일 본각 해주 스님을 제9기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중수행체험단 중국 중경서 수행교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스님과 정사들로 구성된 한중수행체험대표단 32명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중경시 쌍계당에서 제10차 한중수행체험을 진행했다. 쌍계당은 서남불교 선종종찰로 제일선림, 종문거벽(宗門巨擘)이라 불린다.

행사에서는 양국 불교계의 수행자들이 참여해, 수행, 예불, 음식 등 사찰 생활과 지역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 세계문화유산인 낙산대불을 비롯하여, 불교 4대 성지 중 한곳인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을 순례했다.

이번 행사에는 단장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 스님을 비롯하여,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미륵종 비구스님 16명과 조계종, 보문종, 염불종에서 비구니 스님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중수행체험행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발우공양' 미슐랭 스타레스토랑 선정

11월 7일 서울편 1스타에 사찰음식점 유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11월 7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북 서울편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사찰음식점이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건 발우공양이 유일하다.

미슐랭 가이드는 발우공양에 대해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한 레스토랑으로 고기와 해산물 외에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서 만드는 장류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스타 레스토랑은 1~3까지 나뉜다.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 2스타는 멀리 찾아갈만한 식당,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으로 구분한다. 서울편에는 3스타 2곳, 2스타 3곳, 1스타 19곳이 선정됐다.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의 내부 모습.

문화사업단 측은 "미슐랭 가이드에 발우공양이 선정된 것은 2009년부터 사찰음식문화의 원형보전 및 계승,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매진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을 인정받게 된 획기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슐랭 가이드는 전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일관된 선정과정을 통해 미식문화의 국제적 표준이 돼 왔다. 엄격한 교육을 받은 전문 평가원들에 의해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의 창의적인 개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이다.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원은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련사 백우 스님 1주기 맞아 기념법회

11월 19일, 법어집 봉정 및 탑비 · 사적비 제막



태고종 천년 고찰인 양주 청련사 주지를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입적한 백우 스님〈사진〉의 법어집 봉정식과 부도 · 탑비 · 사적비 제막식이 1주기를 맞아 봉행된다.

태고종 청련사(주지 해경 스님)는 11월 19일 오전 11시 경내 대적광전과 부도전 일대에서 백우 스님 열반 1주기 기념 법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평소 백우 스님의 감로 법문을 한데 묶은 법어집 봉정과 함께 부도와 탑비, 사적비 제막식도 함께 마련한다.

청련사측은 "이번 백우 스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탑비 불사 등을 위해 석조각 부문 문화재 수리기능자 박한흥 대표를 선정했으며, 사적 비문은 원철 스님이, 탑비와 사적비 전면부 글씨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초대 총장이 전서체로 쓰기로 했다"며 "비석의 길이는 약 240~2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은 "스님은 평소에 철저한 수행을 후학들에게 강조하셨다"며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 질 때마다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많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청련사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던 안정사의 후신이다. 안정사는 조계종과 분규가 이어져온 사찰로 재산권을 갖던 조계종이 2005년을 전후해 매각함에 따라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이건한 바 있다. 백우 스님은 이 곳 청련사서 24대부터 27대까지 4대에 걸쳐 주지를 맡으며, 이건불사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세납 73세, 법납 61세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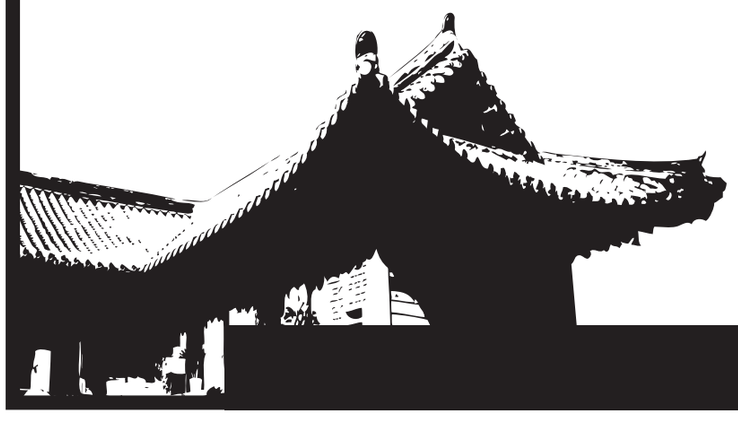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